닛신보 - 총가동 방적추수

국내 및 해외 배치의 규모 안내

그 동안 일본의 면방들이 볼륨 상품에서의 국제 경쟁력을 올리기 위하여 해외로 진출함으로써 생산원가를 낮추고자,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 직접 투자나 합판(合瓣) 등의 방식으로 기술지도나 영업 등에 참여해 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그동안 일본내에서만 높은 수준의 기술로 생산해 오던 고부가가치 상품도 점차 생산원가가 비싸지면서 일본내 생산이 어려워졌다.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생산 거점으로만 여겨온 중국 등도 장차의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므로, 일본내 공장에서만 생산하고 있던 고부가가치 상품을 장차의 소비시장인 인근 여러 나라의 공장에서도 생산하여, 현지의 일본계 공장에도 공급해 줄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수출하고, 구미 여러 나라에도 수출하여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일본의 면방기업은 외국의 현지 기업에의 자본 투자 비율을 높임으로써 경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참여 시설규모를 높이기도 하고, 기술지도도 책임지고 생산 관리까지 담당할 뿐만 아니라 소재의 상당량을 직접 일본의 모회사로 수출하거나 현지에 있는 일본계 공장에의 소재공급과 해외 수출도 늘려 나가려 하고 있다.

닛신보는 내년(2003년) 2월이면 자(子)회사와 관계회사의 방적추수를 합하여 36만추를 약간 밑도는 규모로 늘어나며, 일본내 추수는 31만추에 미달하는 수준이 된다. 일본내 시설은 100수 이상의 세번수 면사 등을 비롯하여 해외 공장에서는 생산하기 어려운 실의 생산을 위하여 약 10만추 정도는 항상 가동할 수 있는 영업력이 있다고 자신하고, 이 외에 일본에서만 가능한 고도

의 후가공(後加工)으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품종인 중상(中上)수준의 원단에의 주문량을 가산하면 31만추 규모의 시설은 책임지고 가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36만추 규모의 해외 공장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항시 기술지도를 책임지려면, 파견기술자가 계속 기술지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대로 일본내 공장에서 새 기술, 부족한 기술을 재충전하여 다시 파견하여야 하므로 이들 기술자들을 여유있게 양성하여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일본내 방적추수 규모와 해외 추수규모를 4:6 또는 4.5:5.5 비율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해외에서 차별화 제품을 생산하려면, 그 질이나 양에 따라 일본내 시설규모와 해외규모의 비율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